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0.2)

1.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일본 경제의 영향 관련

□ [동향]

- 후생노동성의 ‘일반직업소개현황(2019년 8월 기준)’에 의하면, 유효구인 배율은 전월대비 비슷한 1.44배를 유지¹⁾

○ 유효구인배율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함.

□ [일본 언론 동향]²⁾

- 그러나 일본 언론은 미중 통상마찰로 인해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 조정이 이어져 구인이 억제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악화로 관광객이 감소, 관광관련 산업에서 해고자가 발생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
- 나가사키(長崎) 노동국에 의하면, 8~9월 중순까지 숙박업 및 음식 서비스업 외에도 운수업 등 해운업에서 약 50명 정도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아사히 신문은 기타 지역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했던 숙박시설 및 골프장 등은 경영상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고용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보도

2.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전망 관련

□ [일본 언론 동향]³⁾

-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11월 중순에 태국에서 개최되는 ASEAN의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맞추어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 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1) 構成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令和元年8月分)」(2019. 10. 1).

2) 「日韓関係の悪化、雇用にも悪影響 九州・沖縄、8月横ばい 有効求人倍率【西部】」 『朝日新聞』(2019. 10. 2).

3) 「日米韓制服組トップが会談 韓国のG S O M I A破棄決定後初」 『NHK NEWS WEB』(2019. 10. 2).

- NHK는 지소미아가 11월 23일 0시에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
- o 닛케이도 회담이 성사되면 지소미아가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⁴⁾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6월 이래 약 5개월만임.
- 한편 한미일 3국 군 장성간 회담이 1월 미국에서 이루어진 바, 군 장성 대표단의 회담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처음이라고 NHK가 보도
- NHK는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및 중국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상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였을 것이라고 논평

4) 「日米韓防衛相、会談へ、日韓軍事協定が議題か、タイで来月。」『日本経済新聞』(2019. 10. 2).